

돌풍의 '워너원', 해외서도 대세는 "나야 나"

고가 불구 6000석 규모 태극 팬미팅 매진 내달 싱가포르·홍콩·대만 입장권도 완판

그들 워너원의 인기는 해외라고 다르지 않았다.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아시아로 발길을 돌린 워너원이 아시아 팬미팅 입장권을 매진시키며 매머드급 '스타 파워'를 입증했다.

워너원은 16일 태극을 시작으로 22일 싱가포르, 10월 3~4일 홍콩, 7일 대만, 13일 필리핀 등지에서 아시아 팬미팅을 벌인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팬미팅 입장을 조율하고 있어, 투어의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다.

각 나라에서 입장권이 빠른 시간 내 매진되자, 홍콩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1회 공연을 한 회 더 추가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태극에서도 처음엔 3000석을 계획했다가 급박하게 2배를 늘려 6000석 규모로 개최했다. 이 역시 모두 매진됐다.

입장권 가격 역시 여느 한류스타들의 팬미팅



"워너원 고!" 그룹 워너원이 20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소리바다 BEST K-MUSIC AWARDS'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과 다를 바 없이 20만원이 넘는 고가였음에도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매진 행렬에 힘을 보탤었다. 데뷔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고, 게다가 해외 팬들과는 직접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이 같은 폭발적인 인기는 흔치않은 일이다.

20일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YMC 엔터테인먼트 측은 따르면 '프로듀스 101' 시즌2

방송 당시 해외 팬들은 멤버들을 선발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동영상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는 게 전부였다.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조성된 워너원의 해외 열풍은 국내에서 체감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게 워너원측의 설명이다.

워너원은 팬미팅을 통해 각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무대와 히트곡 '에니지틱' '활활' 등을 선보이고 현지 팬덤을 더욱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아시아 팬미팅과 함께 11월 발표할 리퍼키지 앨범도 준비해 다시 국내 활동도 시작한다. 한동안 국내외에서 워너원의 신드롬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워너원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부작용'이 잇따라 워너원 측은 팬들에게 양해를 부탁했다. 특히 일부 도를 넘어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팬들에게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워너원 측은 이날 SNS를 통해 '공황 및 비행기 질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팬 질서 관련 안내" 공지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안내 드린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반복되면 비협조적이며 무례함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팬클럽 활동 제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멤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팬들은 워너원 멤버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던지고 멤버들을 몰래 촬영하며 비행기 내 안전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뉴스

45만 5888 장

그룹 방탄소년단 새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가 발매 하루 만에 기록한 판매량이다. 20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에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19일 이 같은 수량을 판매했다.

#해시태그 킷



'만화광' 설리

사뭇 진지하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설리가 만화방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만화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최근 한 패션잡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요즘 공주처럼 지내고 있다. 만화방에 자주 간다. 좋아하는 분야는 호러물고 어(무섭고 잔인한 만화)"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증명하듯 삶은 계란을 입에 물고 만화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설리 #진리 #만화방 #만화광 #삶은계란

알쓸연잡 (알고보면 쓸데없는 연예 잡학사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키운 적폐 세력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폐해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성근. 뉴스시스

창작활동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의 반대편에는 화이트리스트가 있다.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지난 두 정권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논란과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영화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진실이 이번 기회에 속속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엄파부대 등 극우단체에 금전지원을 한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친정권' 성향의 작품과 인물을 지원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영화계로 한정한다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영화의 제작을 유도, 투자했다는 내용.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모태펀드가 이에 악용돼 왔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영화계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영화인과 영화에 지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정권의 특혜로 인해 제작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영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지목된 영화는 '사선에서'. 영화 제작사가 일주한 사무실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가짜뉴스를 제작한 신문 및 탄핵 반대운동을 벌인 단체 등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국정원이 정보보안국 산하에 엔터테인먼트 파트(엔터팀)를 운영하면서 특정 영화감독을 만나 '애국영화'를 만들면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블랙리스트만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을 것이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연예현장.jpg

에이프릴, 4집 미니앨범 'eternity' 쇼케이스



'소녀에서 숙녀로...' 걸그룹 에이프릴이 4개월 만에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작에서는 소녀의 감성을 부각시켰던 이번엔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20일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미니앨범 '이터니티' 쇼케이스에서 "성숙한 매력을 담아내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타이틀곡 '손을 잡아줘'를 비롯해 수록곡 6곡이 담겼다. 리더 채경은 "춤과 노래 모두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뉴스시스

아! '故김광석 외동딸' 서연양마저...

저작권 상속인 서연양, 10년전 사망 알려져 2006년 추모공연 모습 보인후 1년만에 숨겨

'범죄도시' 중국동포 비하? 강윤성 감독 "중 교포들이 행사 듣는 설정"

"중국 동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도시'(제작 흥필름)의 연출자 강윤성 감독이 19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공개하고 중국 교포들을 의식해 내놓은 발언이다.

'범죄도시'는 2004년 서울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조선족 조폭을 일망타진해가는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 앞서 '청년경찰' 등이 중국 교포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 '범죄도시'의 이 같은 이야기 역시 논란을 모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강윤성 감독은 "실제 있었던 사건에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면서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형사들이 나쁜 놈을 잡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는 조폭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중국 교포들이 형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내용을 중요한 설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조선족 조폭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면서도 이 같은 교포들의 활약도 비중 있게 담아냄으로써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다만 조선족 조폭을 잡기 위해 국내 조폭의 또 다른 폭력 문제를 간과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추석 시즌을 겨냥한 상업영화라 하더라도, 조선족 조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내 조폭의 폭력을 용인하는 듯한 내용이 집적 또 다른 논란을 불러 모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마동석과 윤계상이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는 10월3일 개봉할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연 씨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6년 김광석 추모 공연에서다. 그 후 1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서연 씨는 김광석의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상속받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스크린 데뷔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가 스크린에 데뷔한다.

유정아 전 아나운서는 10월12일 막을 올리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연작 '재회'를 선보인다. 그가 스크린 주역으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영화 '재회'는 '모델 선인장' '지옥' 등을 연출한 박기용 감독의 신작으로, 2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남매의 이야기. 유정아는 25년 전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남자를 새롭게 만나 추억과 중년으로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회한, 인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다.

박기용 감독은 "유정아 아나운서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왔다"면서 "캐스팅을 고민하면서



영화 '재회'

전문배우를 기용할 생각이 없었던 차에 영화 속 캐릭터와 그 연령대, 감성적 이미지 등이 잘 어울린다는 주변의 권유가 많았다"고 그와 함께 작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감독은 "유

영화 '재회'로 내달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박기용 감독 "전문배우 못지않아" 호평

아나운서가 열의를 갖고 촬영에 임했다"면서 "그의 연기력 역시 만족한다"고 덧붙혔다. '재회'를 '한국영화의 오늘' 섹션에서 소개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프로그래머도 "유정아 아나운서가 전문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정아는 향후에도 연기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 나설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2014년 배우 조재현 등과 함께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 출연해 공연을 하며 연기를 경험한 바 있다.

한편 박기용 감독 등 제작진은 '재회'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뒤 극장 개봉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